

중학생의 초기 부적응 도식이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기구실 만들기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정 미 경¹⁾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이 지 연²⁾

인천대학교
창의인재개발학과

장 진 이³⁾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는 중학생의 초기 부적응 도식과 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구실 만들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 소재 남녀 중학생 45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고, SPSS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고 비교 검증한 결과, 경쟁모형이 채택되었다. 즉, 초기 부적응 도식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기구실 만들기 그리고 지연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지연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자기구실 만들기는 초기 부적응 도식과 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도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연행동의 발달적 기원으로서 초기 부적응 도식의 평가와 개입에 대해 강조하였고, 지연행동에 대한 교육 및 상담적 개입에서 다루어야 할 변인으로서 자기구실 만들기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직간접적인 변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주요어 : 초기 부적응도식, 지연행동,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기구실 만들기, 매개효과

* 본 논문은 인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1)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

2) 교신저자 : 인천대학교 창의인재개발학과, 부교수 (E-mail : becoming@incheon.ac.kr)

3)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I. 서론

학생들은 종종 해야 할 일을 나중에 미루는 행동을 한다. 이러한 미루는 행동으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게으르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곤 한다. 그렇다면 학교 교육과 사교육, 학업적 성취와 또래 관계 등 다방면에서 효율적인 자기조절 능력이 요구되는 오늘날의 학생들에게 지연행동에 대한 예방교육과 상담적 개입은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중학생의 ‘사람됨의 위기’(중앙일보, 2013. 9. 23)에서 중학생들의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러한 자기조절의 실패는 학업 장면에서 지연행동을 초래하며 지연행동이 많아질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아졌다(남경득, 손은정, 2013). 이미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연행동 극복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효과성이 검증되고 있지만(김은지, 2012; 함경애, 송부옥, 노진숙, 천성문, 2011),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변인들과 심리적 기제에 대한 탐색 연구는 대학생들을 주요 연구대상자로 하였다(임성문, 2008). 따라서 중학생들의 지연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연행동을 초래하는 관련 변인들과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과제의 시작과 끝맺음을 미루는 행동은 지연행동으로 명명되었는데(Milgram & Tenne, 2000), 지연행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심리내적으로는 후회, 절망, 불안, 우울, 자기비난, 죄의식 및 수치심을 느끼는 경향이 있었고, 자존감과 자기효능감 수준이 낮았다. 또한, 지연행동은 대인관계와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미쳤을 뿐 아니라 학습부진과 저조한 학업 성취, 직업상의 기회 상실과도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errari, Johnson, & McCown, 1995).

이와 같이 지연행동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결과가 알려지면서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Baumeister, Heatherton과 Tice(1994)는 자신이 기대하는 목표수준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로 행하는 수행과의 격차가 지연행동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구실 만들기,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자존감, 비합리적 인지, 충동성, 특성-상태불안, 사회불안, 공적-사적 자기의식, 부모의 비판, 반항성 등이 지연행동과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Ferrari, 2004).

국내에서도 지연행동과 관련된 변인으로 완벽주의(계수영, 2009; 김민선, 서영석, 2009; 김현정, 2003; 추상엽, 임성문, 2009), 자기효능감(김현정, 2003; 최지연, 2001),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강미정, 2006; 김문정, 정윤경, 2012; 김연실, 2000; 김현정, 2003; 류지연, 2002; 박재우, 1998; 서은희, 2006; 윤숙경, 1997; 이은정, 2001), 실패공포(김현정, 2003; 김환, 1999; 임성문, 2007; 추상엽, 임성문, 2008), 자기구실 만들기(박보람, 2012; Flett et al., 1995) 등이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탐색한 121개의 연구를 메타분석한 Van Eerde(2003)에 따르면 상관관계 효과 크기들이 이질적이었다. 따라서 다양한 매개변인의 작용을 가정할 수 있다(이지연, 조혜숙, 2011). 또한 지연행동의 원인으로서 발달적 기

원과 심리적 과정, 그리고 결과로서의 심리적 부적응 등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모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이 국내외에서 제기되었다(임성문, 2006, 2008; Flett, Blankstein, Martin, 1995; Flett, Hewitt, Martin, 1995). Flett 등(1995)은 지연행동의 기원을 가족 환경에서 찾고 지연행동의 극복을 위해서는 단순히 시간관리나 과제기술 향상에 그치지보다는 발달 관련 심리적 변인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격적 특성에 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특성의 발달에 기여하는 요인과 과정을 탐색하는 것인데, 지연행동의 원인으로 생애 초기에 형성된 심리적 특성과 이의 발현 기제를 탐색하는 것은 지연행동에 대한 이해와(Flett, Hewitt, Oliver, & Macdonald, 2002) 효과적인 개입에 유용할 것이다

인지행동이론(Ellis & Knaus, 2002)에서는 지연행동의 원인으로 가정하는 비합리적 사고의 발달적 기원을 초기 아동기에 형성되는 핵심 신념 또는 초기 도식에서 찾고 있다(임성문, 2006). 만성적인 심리적 문제를 지닌 내담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인지행동 치료의 개념과 치료 방법을 확장시킨 심리도식치료(schema therapy)에서는 생애 초기에 형성되어 심리적 문제를 초래하는 초기 부적응도식(early maladaptive schemas: EMSs)에 주목하고 있다. Young, Klosko와 Weishaar(2003)는 초기 부적응도식의 기원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충족되지 못한 아동기의 핵심적 정서 욕구, 둘째 생애 초기의 유해한 경험, 셋째 개인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정서적 기질 등이다.

이러한 초기 부적응 도식이 지연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임성문, 2006, 2008). 임성문(2006)에 따르면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초기 부적응도식은 자기희생 도식, 엄격한 기준 도식, 부족한 자기통제/자기훈련 도식, 의존/무능감 도식이다. 이 4개의 도식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것은 부족한 자기통제/자기훈련 도식이었다. 또한 부족한 자기통제/자기훈련 도식과 의존/무능감 도식은 지연행동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기희생 도식과 엄격한 기준 도식은 부적응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Young 등(2003)의 이론적 가정과는 다른 결과로 우리 문화에서는 자기희생 도식과 엄격한 기준 도식을 적응적인 도식으로 가정할 수 있다(임성문, 2006).

임성문(2006)의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성적으로 보이는 지연행동에 초기 부적응도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검증되었지만,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과인 만큼 청소년, 특히 중학생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한편, 초기 부적응 도식과 지연행동 간의 관계에 감각추구, 실패공포, 완벽주의, 자기효능감의 매개모형 검증에서 드러났듯이 지연행동의 발달적 기원으로서의 초기 부적응 도식과 지연행동 간의 관계에는 다양한 매개 변인이 작용할 수 있다(임성문 2008). 실제로 자기효능감(추상엽, 임성문, 2008; Haycock, McCarthy, & Skay, 1998), 자존감(김광숙, 김정희, 2007), 자기결정성(박명희, 2008; 배대식, 2009), 부모양육 방식(황임숙, 2008; Ferrari & Olivette, 1994) 등이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임이 검증되었다. 이는 초기 부적응도식이 직접적으로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매개 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초기 부적응 도식이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임성문, 2006) 초기 부적응 도식이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매개변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매개변인에 대한 탐색은 초기 부적응 도식이 지연행동을 초래하게 되는 심리적 기제에 대한 통찰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상담적 개입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초기 부적응 도식과 지연행동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정할 수 있다. 지연행동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어 온 학업 지연행동의 주요 원인으로 실패공포가 제기되었는데(배대식, 2009; Beswick, Rothblum, & Mann, 1998), Birney, Burdick과 Teevan(1969)은 사람들이 실패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실패로 인한 결과를 더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성취에 실패했을 경우, 자기 가치가 감소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가 실패로 인해 그러한 평가를 바꿀 것이라고 예상할 때 생긴다. 또, 사회적 가치의 감소에 대한 두려움은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이 자신을 덜 가치있게 생각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다(추상엽, 임성문, 2008). 이는 결국 타인으로부터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지연행동을 자주 하는 학생들은 타인으로부터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Saddler & Buley, 1999).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란 타인에 의

해 자신이 관찰되거나 평가받는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족하게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말한다(Marks & Gelder, 1996).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인상을 주고 싶어하나 그러한 인상을 타인에게 줄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자신의 능력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타인에게 자신이 부적절하고 부족하게 비춰져 우습게 보일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최정훈, 이정운, 1994).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믿고, 완벽에 가까운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불안해지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는 경향이 있다(김민선, 서영석, 2009; 홍경화, 2011; 홍영근, 문지혜, 조현재, 2011; Deffenbacher, Zwemer, Whisman, Hill, & Slean, 1986).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두려움은 사회화 과정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보이는 반면, 두려움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사회적 상황에서 부적응을 초래한다(홍경화, 2011). 일반적인 공포나 불안, 여러 정신병리들의 촉발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며(Reiss & McNally, 1985), 특히 지연행동과 같은 사회적 회피 행동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tein, Jang, & Livesley, 2002). 이러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초기 부적응 도식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는 발견할 수 없지만,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비합리적 사고 및 정서 등의 발달적 기원으로 초기 부적응 도식이 검증되었던 만큼(임성문, 2006, 2008) 초기 부적응 도식을 선행 변인으로 하여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황현정(2012)의 연구에서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지연행동과 상관이 있기는 하지만,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집단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낮은 집단에 비해 뚜렷하게 지연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이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함을 보여 주는 것임과 동시에 두 변인 사이에 다른 변인이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학생이라는 신분은 성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평가 상황에 노출되게 만드는데, 우리사회에서 시험이라는 평가 상황에서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가정하여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선택하였다.

한편, 지연행동과의 관련성이 탐색되어 온 주요 변인 가운데 하나가 자기구실 만들기이다(오지은, 2010; Urdan & Mildgley, 2001). 구체적으로 자기구실 만들기는 학업적 지연행동과도 정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Beck, Koons, & Milgrim, 2000; Eerde, 2003; Steel, 2007). 실패했을 경우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 부족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귀인하기 위한 전략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수행 성공을 방해하기 때문에 자기불구화(self-handicapping) 전략이라고도 한다(Urdan & Mildgley, 2001). 자기구실 만들기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실패의 의미를 바꾸기 위한 전략인 것이다(오지은, 2010).

타인보다 열등해 보이는 것을 피하려는 경향성인 수행회피 목표를 가진 학습자는 실패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타인에게 능력이 부

족해서 실패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실패구실을 만드는 자기구실 만들기를 하였다(조민경, 2010). 따라서 자기구실 만들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실패에 대한 타인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Covington(1992)에 따르면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는 것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능력은 그 사람의 가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능력이 없다는 것은 곧 가치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능력을 평가받는 상황에서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실패를 피해가거나 그 실패의 의미를 바꾸려고 노력한다.

필수 대처자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지연행동자의 경우 자신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과제를 완료하거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이는 자기구실 만들기의 노력하지 않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다(이정아, 현명호, 2009). 타인이 자신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엄격하게 평가하고 그 기준들이 달성되었을 때에만 타인들이 만족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학생일수록 타인과 비교하여 더 나은 평가를 얻지 못할 것을 걱정하면서 학습 과제에 대해 회피하려 하였다(박보람, 2012). 이러한 회피경향성이 여러 가지 자기구실 만들기를 통해 최종적으로 학업 장면에서의 지연행동을 증가시킨다. 그렇다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의 수행에 대해 자기구실 만들기를 하려는 경향성을 보일 것으로 가정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구실 만들기와 초기 부적응 도식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는 발견할 수 없지만,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비합리적 사고 및 정서 등의 발달적 기원으로 초기 부적응 도식이 검증되었던 만큼(임성문, 2006, 2008) 초기 부적응 도식을 선행 변인으로 하여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구실 만들기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지연행동 사이의 관계에서 자기구실 만들기가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초기 부적응 도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기구실 만들기 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초기 부적응 도식과 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구실 만들기 가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검증은 중학생의 지연행동의 심리적 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교육과 상담적 개입을 모색하기 위한 경험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부적응 도식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기구실 만들기, 지연행동은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을 가지는가?

둘째, 초기 부적응 도식과 지연행동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구실 만들기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것인가?

셋째, 초기부적응 도식과 자기구실 만들기와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것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설정한 변인들 간의 구조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또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지연행동과 관련성이 크고 지연행동을 초래한다는 연구(Stein et al., 2002; 추상엽, 임성문, 2009) 외에 서로 관련성이 있지만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뚜렷하게 지연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황현정, 2012) 등 연구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연구모형에서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지연행동으로 가는 경로를 설정하였고, 경쟁모형에서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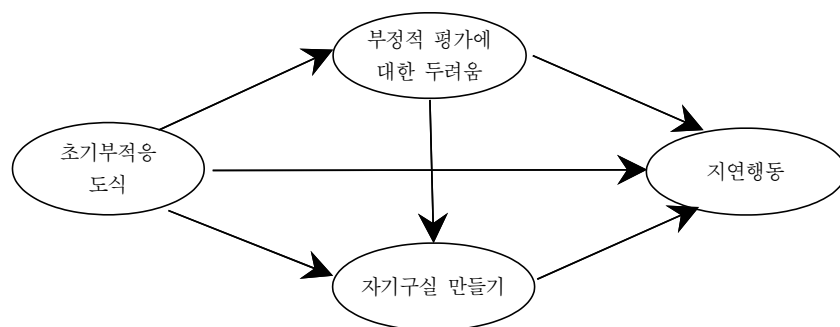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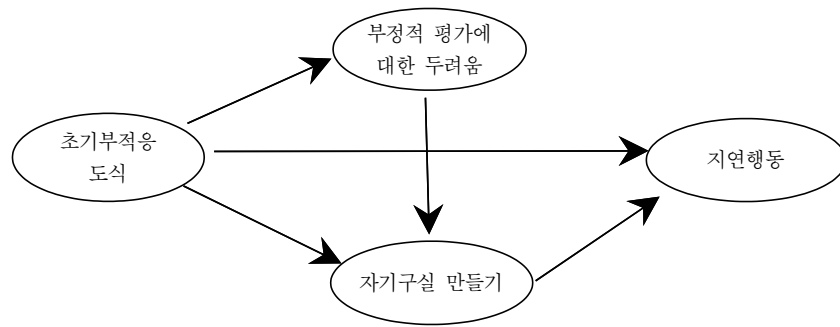


그림 2. 경쟁 모형

두려움에서 지연행동으로 가는 경로를 설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설정한 경쟁모형은 그림 2와 같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 중학교 2, 3학년 남·여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487부를 회수하였으며 검사 문항이 누락된 경우나 무성의하게 답변한 31부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45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2학년이 259명(56.8%)으로 3학년 197명(43.2%)보다 많았으며, 여학생이 251명(55.0%)으로 남학생 205명(45.0%)보다 많았다.

2. 측정도구

지연행동

지연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Solomon과 Rothblum(1984)이 개발하고, 윤숙경(1997)이 변안한 학생용 지연행동 평가 척도(Procrastination

Assessment Scale-Student, PASS)를 사용하였다. 총 44문항으로 6개의 학업 영역에서 지연행동이 나타나는 빈도와 문제가 되는 정도를 평가하는 첫 번째 부분과 지연행동의 원인을 평가하는 두 번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Likert식 5점 척도(‘절대 미루지 않는다’, ‘전혀 문제가 아니다’: 1점, ‘항상 미룬다’, ‘항상 문제이다’: 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연행동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원인보다는 빈도와 문제가 되는 정도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원인을 평가하는 문항을 제외한 첫 번째 부분만을 학업지연행동 평가 척도로 사용하였다. 첫 번째 부분은 지연행동이 6개 학업영역(보고서 쓰기, 시험공부, 교재읽기, 학교 행정, 출석(지각, 전반적 학교생활)에서 어느 정도로 나타나며(지연 빈도), 지연행동에 대해 스스로 문제를 느끼는 정도(지연 문제)를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상황에 맞지 않은 학교 행정 부분을 빼고 지연 빈도(5문항)와 지연 문제(5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조혜숙(2011)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는 지연 빈도 .65, 지연 문제 .78, 전체 .7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지연 빈도 .69, 지연 문제 .74, 전체 .76으로 나타났다.

초기 부적응도식

Rijkeboer와 de Boo(2010)가 개발한 아동청소년용 도식척도(Schema Inventory for Children, SIC)로 송영희와 이윤주(2012)가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4점 Likert식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정말 그렇다’(4점)의 반응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초기 부적응도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서적 박탈(emotional deprivation)과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 도식 척도가 합산된 외로움(loneliness) 도식 척도 5문항, 유기(abandonment)와 피해나 병에 대한 취약성(vulnerability)도식 척도 6문항, 결핍(defectiveness)도식 척도 3문항, 실패(failure)도식 척도 3문항, 의존(dependency)과 복종(subjugation) 및 정서적 억제(emotional inhibition)척도가 합산된 굴복(submission, 기능적 의존)도식 척도 5문항, 가혹 기준(unrelenting standards)도식 척도 3문항, 자기희생(self-sacrifice)도식 척도 3문항, 융합(enmeshment)도식 척도 3문항, 자기통제 부족(insufficient self-control)도식 척도 3문항 등 9가지 하위영역의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는 .89로 나타났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Carleton, McCreary, Norton과 Asmundson(2006)이 개발한 BFNE(Brie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를 홍영근 등(2011)이 변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 II(K-BFNE2)를 사용하였다. Carleton 등(2006)은 역채점 문항이 척도의 타당성을 떨어뜨리고, 수검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홍영근 등(2011)은 4개

의 역채점 문항(2, 4, 7, 10)을 바꾸었는데, 바꾼 문항 4와 기존의 문항 8의 의미가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나 총점과 상관의 상대적으론 낮은 문항 4를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Likert식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하여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해석한다. 홍영근 등(2011)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는 .9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자기구실 만들기

Jones와 Rhodewalt(1982)가 개발한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 척도(Self-Handicapping Scale; SHS)를 류정희(2006)가 변안하고 김아름(2009)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6점 Likert식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6점)로 반응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을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요인분석과 문항내용을 토대로 노력 포기를 측정하는 문항 7개(예, ‘나는 일을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는 경향이 있다’)와 변명 경향을 측정하는 문항 5개(예, ‘다른 사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나는 상황을 합리화하고 싶어진다,’ ‘뭔가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는 우선 환경을 탓하고 싶어진다.’) 등 총 12문항(1, 2, 4, 7, 8, 9, 15, 16, 17, 18, 19, 25)을 사용하였다. 김아름(2009)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는 .72이었고, 본 연구에서 자기구실 만들기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74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자료는 SPSS 18.0과 AMOS 18.0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우선적으로 전반적인 자료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주요 변인간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초기 부적응도식과 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구실 만들기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우선적으로 측정모형 검증을 위하여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 (1998)의 제안에 따라 세 개의 문항꾸러미로 측정변수를 설정하였다. 단, Russell 등(1998)의 주장에 따라 각 꾸러미들이 잠재변수에 동일한 부하량을 갖도록 문항들을 묶었다. 이를 위해 가장 높은 부하량을 지닌 문항과 가장 낮은 부하량을 지닌 문항들을 짝으로 묶어 꾸러미에 할당하였다. 문항 2, 8, 9는 꾸러미 1로, 문항 1, 5, 10, 11은 꾸러미 2, 문항 3, 4, 6, 7은 꾸러미 3으로 각각 묶였다. 자기구실 만들기 역시 3개의 꾸러미를 제작하여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문항 3, 4, 7, 8은 꾸러미 1, 문항 2, 6, 10, 12는 꾸러미 2, 문항 1, 5, 9, 11은 꾸러미 3으로 각각 묶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표본 크기에 비교적 덜 민감한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 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을 사용하였다. RMSEA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로 .05이하(Browne & Cudeck, 1993) 또는 .06이하(Hu &

Bentler, 1999)일 때 좋은 적합도이며, .08 이하면 보통 적합도로,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판단된다. 반면, CFI와 TLI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 .90이상이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한다(홍세희, 2001).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상관분석 결과, 초기 부적응 도식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간에 정적 관련성이 나타났다($r = .68, p < .01$), 초기 부적응 도식과 자기구실 만들기($r = .62, p < .01$), 초기 부적응도식과 지연행동($r = .39, p < .01$) 간에도 정적 관련성이 나타났다. 한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구실 만들기($r = .54, p < .01$),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지연행동($r = .30, p < .01$), 자기구실 만들기과 지연행동($r = .37, p < .01$) 간에는 정적 관련성이 나타났으나, 초기 부적응도식의 하위변인 중 자기희생과 지연행동 간에는 관련성이 유의미하지 않았다($p > .05$). 구체적인 결과는 표 1과 같다.

2. 측정 모형 검증

구조 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 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측정 모형을 검증한 결과, 초기 부적응 도식의 하위 변인 가운데 자기희생(Λ

표 1. 초기 부적응도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기구심 만들기, 지역행동 간 상관행렬 (n = 45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00														
2	0.62**	1.00													
3	0.64**	0.62**	1.00												
4	0.56**	0.54**	0.59**	1.00											
5	0.59**	0.62**	0.58**	0.58**	1.00										
6	0.54**	0.56**	0.56**	0.53**	0.57**	1.00									
7	0.02	0.12*	0.06	-0.03	0.14**	0.37**	1.00								
8	0.32**	0.49**	0.44**	0.37**	0.46**	0.41**	0.29**	1.00							
9	0.54**	0.57**	0.53**	0.54**	0.53**	0.54**	0.09	0.56**	1.00						
10	0.82**	0.82**	0.79**	0.75**	0.81**	0.57**	0.26**	0.61**	0.52**	1.00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11	0.55**	0.56**	0.54**	0.49**	0.54**	0.38**	0.32**	0.51**	0.68**	1.00				
자기구심 만들기	12	0.47**	0.49**	0.47**	0.42**	0.44**	0.41**	0.30**	0.49**	0.62**	0.54**	1.00			
지역 행동	13	0.32**	0.25**	0.30**	0.33**	0.25**	0.09*	-0.18**	0.10*	0.43**	0.23**	0.32**	1.00		
	14	0.21**	0.29**	0.26**	0.23**	0.27**	0.22**	0.04	0.25*	0.26**	0.33**	0.29**	0.35**	1.00	
	15	0.32**	0.32**	0.34**	0.33**	0.31**	0.22**	-0.07	0.22**	0.41**	0.39**	0.37**	0.38**	0.86**	1.00
평균	2.06	2.32	1.98	2.01	2.17	2.43	2.85	2.31	2.50	2.25	3.22	3.29	2.67	2.79	2.73
표준편차	.60	.52	.61	.62	.50	.60	.54	.49	.57	.39	.92	.71	.62	.74	.56
세도	1.15	.14	-.34	.48	.12	-.15	-.53	-.16	-.21	.25	-.28	-.27	-.07	.08	-.17
정도	5.83	-.01	.01	.38	.35	1.43	.97	.49	.30	1.47	-.08	.73	.11	.01	.50

주. 1.외도움, 2.취약성, 3.결함, 4.심취, 5.공부, 6.가혹기성, 7.자기회성, 8.유할, 9.부적응, 10. 초기 부적응도식, 11.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12. 자기구심 만들기, 13. 지역행동

14. 지역행동, 15. 지역행동 정도

* $p < .05$, ** $p < .01$.

= .17)은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이 .30 이하로 나와 집중타당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 결과 변인간의 관계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측정 모형의 적합도($\chi^2 = 260.81$, CFI = .96, TLI = .95, RMSEA = .06)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측정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

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잠재변인을 설명하고 있는 측정변인들의 요인 값은 초기 부적응 도식의 하위요인인 가혹기준(.49)을 제외하고는 모두 .50이상으로 수렴타당도를 만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2, 표 3, 그림 3과 같다.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χ^2	df	TLI	CFI	RMSEA (90% CI)
측정모형	260.809	98	.950	.959	.060 (.052-.069)

표 3. 측정모형의 요인 값

잠재변인	측정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t	표준화 계수
초기 부적응 도식	외로움	1.00			.77
	취약성	0.74	0.04	17.65***	.79
	결함	0.52	0.03	17.48***	.79
	실패	0.48	0.03	15.74***	.72
	굴복	0.68	0.04	16.89***	.76
	가혹 기준	0.26	0.03	10.23***	.49
	융합	0.29	0.03	11.55***	.54
	통제 부족	0.44	0.03	15.75***	.72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평가 두려움1	1.00			.88
	평가 두려움2	1.36	0.05	29.96***	.93
	평가 두려움3	1.39	0.05	30.60***	.94
자기구실 만들기	자기구실1	1.00			.69
	자기구실2	0.96	0.07	13.82***	.78
	자기구실3	1.03	0.07	13.70***	.77
지연행동	지연 빈도	1.00			.63
	지연 문제	1.05	0.15	6.83***	.5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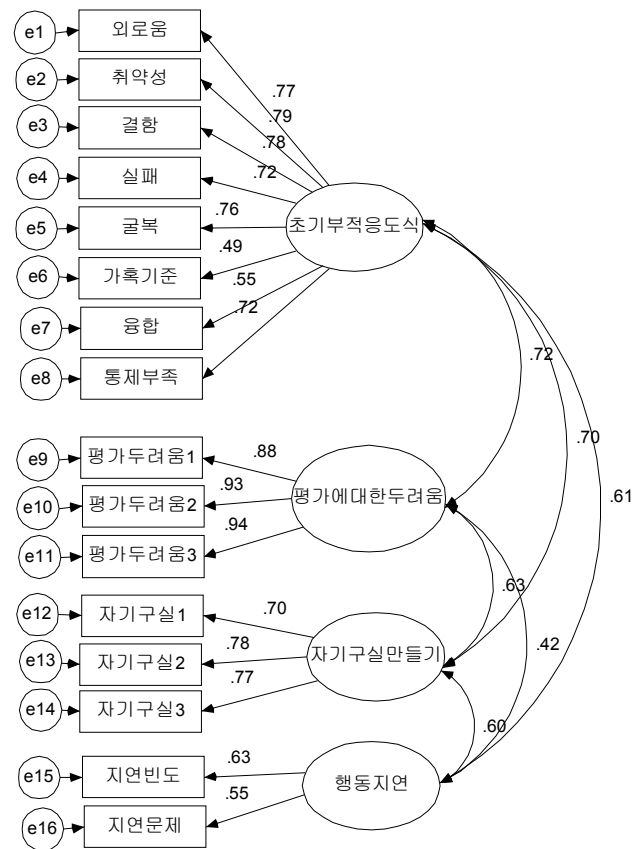


그림 3. 측정모형

3. 구조모형 검증

검증 결과 연구모형은 $\chi^2 = 260.81(df = 98, N = 456, p < .001)$, CFI = .96, TLI = .95, RESEA = .06 (90% 신뢰구간 .052-.069)을 보여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으며, 경쟁모형은 $\chi^2 = 262.99(df = 99, N = 456, p < .001)$, CFI = .96, TLI = .95, RMSEA = .06(90% 신뢰구간 .052-.069)을 보여 역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간에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유도 1이 차이가 날 때 $\Delta\chi^2 = 2.18(p < .001)$ 로 두 모형은 차이

가 없었다. 따라서 보다 간명한 모형인 경쟁모형을 채택하였다. 특히, 두 모형의 경로도를 살펴본 결과, 연구모형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지연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쟁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수용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4와 같다.

4. 최종 모형의 모수 추정

최종 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5개의 경로가 유의미하였다. 또한 최종 모형의 내생

표 4. 모형1(연구모형)과 모형2(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Model	df	χ^2	$\Delta\chi^2$	TLI	CFI	RMSEA (90% CI)
모형1 (연구모형)	98	260.809	2.183	.950	.959	.060 (.052-.069)
모형2 (경쟁모형)	99	262.992		.950	.959	.060 (.052-.069)

잠재 변수들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초기 부적응 도식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은 약 41.6%, 자기구실 만들기가 초기 부적응 도식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은 약 40.7%, 지연행동이 초기 부적응 도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기구실 만들기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은 약 18%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그림 4와 표 5와 같다.

초기 부적응 도식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72), 자기구실 만들기(.51), 지연행동(.38)에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구실 만들기(.27), 자기구실 만들기는 지연행동(.32)에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5. 매개 효과

최종 구조모형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기구실 만들기가 지연행동에 대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분석한 결과 초기 부적응 도식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72의 직접효과, 자기구실 만들기에 .51의 직접효과를 나타내어 큰 효과 크기를 나타냈고, 지연행동에는 .38의 직접효과를 나타내었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간접효과는 .19, 자기구실 만들기의 간접효과는 .16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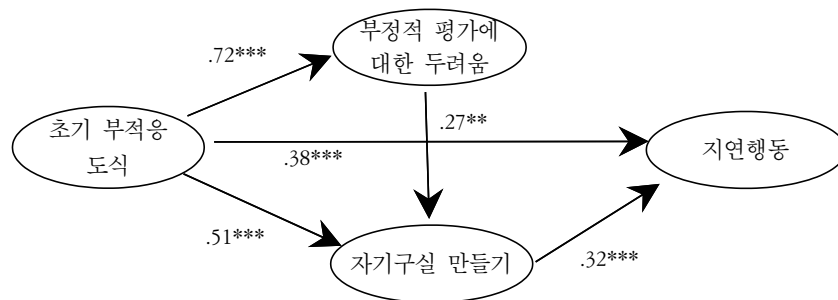


그림 4. 최종모형의 경로도

** $p < .01$.

표 5.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	S.E.	표준화 계수	C.R.
초기 부적응 도식	→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68	.05	.72	14.27***
초기 부적응 도식	→	자기구실 만들기	.47	.07	.51	6.96***
초기 부적응 도식	→	지연행동	.26	.07	.38	3.72***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	자기구실 만들기	.26	.07	.27	3.98***
자기구실 만들기	→	지연행동	.24	.08	.32	3.05**
R^2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 41.6% 자기구실 만들기 : 40.7% 지연행동 : 18%			

** $p < .01$. *** $p < .001$.

표 6. 최종 구조모형의 효과 분해

경로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z
→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72***	.72***	-	
초기 부적응 도식	→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	자기구실 만들기	.70***	.51***	.19*** (.09~.29)	3.73
	→	자기구실 만들기	→	지연행동	.16***		.16***	3.51
	→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	자기 구실 만들기	.61***	.38***	.23** (.11~.38)	10.69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			자기구실 만들기	.27***	.27***	-	
	→	자기구실 만들기	→	지연행동	.09**	-	.09** (.04~.17)	2.78
자기 구실 만들기	→			지연행동	.32***	.32***	-	

**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기 부적응 도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기구실 만들기, 지연행동의 관계를 살펴보고 초기 부적응 도식과 지연행동과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구실 만들기의 매개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는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초기 부적응도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기구실 만들기, 지연행동에 대해 설문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초기 부적응 도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기구실 만들기, 지연행동의 관계를 살펴보면 초기 부적응도식 전체와 지연행동 간의 관련성에서 자기희생을 제외한 외로움/불신/학대, 취약성, 결함, 실패, 굴복, 가혹 기준, 융합, 통제 부족 등 8가지 하위 요인이 지연행동의 2가지 하위 요인인 지연 빈도, 지연 문제와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을 나타냈다. 그러나 초기 부적응 도식 하위 요인 가운데 가혹 기준과 자기희생은 다른 연구 변인들과의 관련성보다 상대적으로 작았는데, 이 두 하위 요인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즉, 임성문(2006)은 우리 문화에서는 자기희생 도식과 엄격한 기준 도식이 심리도식 치료의 이론적 가정과 달리 적응적인 도식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만약 두 도식이 우리 사회에서 적응적인 도식이라면 지연행동과 부적 관련성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가혹 기준은 지연행동과 낮은 수준의 정적 관련성을 나타냈고, 자기희생 도식과 지연행동과의 관련성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

서 이러한 결과가 문화적 차이에 의한 결과인지 아니면 가혹 기준과 자기희생 도식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상의 문제인지에 대한 추후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초기 부적응 도식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초기 부적응 도식과 자기구실 만들기 간에는 정적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는 초기 부적응 도식의 특성을 많이 가질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구실 만들기 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데, 중학생이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구실 만들기에 대한 개입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에 대한 평가가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초기 부적응 도식이 초기 양육 환경과 관련되는 만큼(Young et al., 2003) 부모와의 상호작용과 양육태도 등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초기 부적응 도식과 지연행동과의 정적 관련성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임성문, 2006, 2008) 발달 단계와 관계 없이 지연행동에 대한 발달적 기원으로서 초기 부적응 도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즉, 지연행동이 단순히 시간관리 내지 과제기술의 차원이 아니라 한 개인의 심층적인 심리구조라 할 수 있는 심리도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진 만큼 지연행동에 대한 교육과 상담에서도 초기 부적응 도식 등 보다 개인 내적인 변인에 초점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초기 부적응 도식 형성에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지연행동에 대한 개입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과 양육 태도 등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초기 부적응 도식과 지연행동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구실 만들기가 매개 변인으로 작용할 것인지를 살펴본 결과, 최종 모형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지연행동 간의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지연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선행연구 결과와(Stein et al., 2002)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지만,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집단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낮은 집단 사이에 지연행동에서 뚜렷한 차이가 없었던 연구 결과와는(황현정, 2012)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지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실패공포(배대식, 2009; Beswick et al., 1998)보다는 타인으로부터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지연행동과 높은 관련성을 보였던 Stein 등(2002)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지연행동 간의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았던 만큼 최종 모형에서처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지연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자기구실 만들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구실 만들기를 매개 변인으로 하여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 궁극적으로 만성적인 지연행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연행동과 관련성을 가지는 또 다른 변인인 실패공포 등과 보다 분명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에 대해 좀 더 명료한 조작적 정의 후 본 모형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증 작업도 필요하다.

한편, 초기 부적응 도식은 자기구실 만들기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지연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초기 부적응 도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 궁극적으로 지연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연행동에 자기구실 만들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을 사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찾고 대안적인 전략을 모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본 연구는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초기 부적응 도식 등 개인의 심층적인 내적 변인에 주목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만성적인 지연행동이 발달적 기원을 가지는 것으로 검증된 만큼 기존의 시간관리 등 기술 및 방법론적 접근에서 벗어나 발달적 관점에서 지연행동을 바라보고 보다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 부적응 도식에 대한 상담적 개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초기 부적응 도식이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매개변인에 대한 탐색은 더더욱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자기구실 만들기를 매개로 하여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적 개입에서 초점화해야 할 변인으로 자기구실 만들기가 중요하며 자기구실 만들기에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개입 전략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연구대상이 중학생으로 제한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중학생의 지연행동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아래 선정된 연구대상이지만 앞으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에 대한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수도권 소재 중학교 2, 3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연행동과 자기구실 만들기를 측정하는 척도의 내적합치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이러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타당화된 척도를 사용하여 본 연구 결과의 타당도를 검증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연행동 수준을 살펴보고, 초기 부적응 도식과 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구실 만들기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우리 사회의 중학생은 사춘기라는 발달상의 큰 변화기를 겪어 내야 함과 동시에 과중한 학업 부담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학업 부담감 역시 지연행동을 초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자기존중감등의 심리적 자원도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였다(장진이, 이지연,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자기구실 만들기에 대한 개입 외에도 다양한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심리적 특성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교육과 상담적 개입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미정 (2006). 완벽주의와 학업 지연행동의 관계: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계수영 (2009). 완벽주의와 성취목표지향성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숙, 김정희 (2007). 꾸물거림과 성격의 5요인, 자기효능감, 자기존중감 및 우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치료, 19(4), 933-947.
- 김문정, 정윤경 (2012). 어머니의 완벽주의, 아동의 완벽주의와 목표지향성 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9(3), 63-83.
- 김민선, 서영석 (2009).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제시동기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3), 525-545.
- 김아름 (2009).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과의 관계에서 자존감 및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실 (2000). 부모권위에 따른 완벽주의와 지연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지 (2012). 시간관리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학업적 지연행동과 의지통제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정 (2003). 완벽주의, 충동성, 자기효능감 및 실패공포가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 환 (1999). 학업적 꾸물거림에서 실패공포가

- 과제 제출 행동 지연에 미치는 영향. 서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경득, 손은정 (2013). 자기조절 학습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지연행동의 매개 효과 검증. *청소년시설환경*, 11(4), 41-50.
- 류정희 (2006). 시험불안과 학업적 유능감의 관계: 동기적 성취전략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지연 (2002). 자기효능감 및 완벽주의 성향과 지연행동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명희 (2008). 위험회피 기질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만성적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결정성의 매개효과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보람 (2012). 대학생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의 관계 수행회피 성취목표와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의 매개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우 (1998). 과제의 자아 위협도와 완벽주의가 과제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대식 (2009).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업 동기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은희 (2006). 학업적 지연행동 극복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영희, 이윤주 (2012).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초기부적응도식 척도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3(6), 2899-2917.
- 오지은 (2010). 중·고등학생의 성취목표 지향성이 자기구실 만들기, 시험불안 및 학업적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숙경 (1997). 완벽성향과 자기개념에 따른 대학생의 지연 특성의 차이.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정 (2001). 대학생의 학업적 지연행동과 완벽주의 및 통제소재와의 상관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아, 현명호 (2009). 만성지연행동과 적응 스트레스. *사회과학연구*, 17(2), 199-207.
- 이지연, 조혜숙 (2011). 초등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실패공포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시설환경*, 9(4), 35-48.
- 임성문 (2006). 대학생의 만성적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초기 부적응도식. *한국청소년연구*, 44, 185-211.
- 임성문 (2007). 감각추구, 실패공포, 완벽주의와 대학생의 만성적 지연행동 간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47, 323-356.
- 임성문 (2008). 초기 부적응도식과 만성적 지연행동간의 관계: 경로모형 탐색과 검증. *사회과학연구*, 25(1), 3-51.
- 장진이, 이지연 (2013). 초등학생의 과중한 학업요구와 학업적 꾸물거림과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5(2), 247-265.
- 조민경 (2010). 성취목표,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 성패에 따른 귀인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혜숙 (2011). 초등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실패공포의 매

- 개효과 연구.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중앙일보 (2013, 9, 23). 중학생의 사람됨의 위기.
- 최정훈, 이정운 (1994). 사회적 불안에서의 비합리적 신념과 상황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6(1), 21-47.
- 최지연 (2001).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추상엽, 임성문 (2008). 실패공포와 학업적 지연행동 간의 관계: 회피목표, 인지적 의지통제의 매개효과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모의 성취압력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19(4), 169-198.
- 추상엽, 임성문 (2009).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 간의 관계: 수행회피 성취목표의 매개효과의 인지전략, 메타-인지전략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6(1), 467-490.
- 함경애, 송부옥, 노진숙, 천성문 (2011). 남자 중학생을 위한 학업적 지연행동 극복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상담학연구, 12(3), 861-879.
- 홍경화 (2011).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5), 291-320.
- 홍세희 (2001).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초와 응용. 미발간 워크샵 교재.
- 홍영근, 문지혜, 조현재 (2011). 한국판-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Ⅱ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1), 117-134.
- 황임숙 (2008).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적 지연행동: 자기효능감과 완벽주의를 매개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현정 (2012).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umeister, R. F., Heatherton, T. F., & Tice, D. M. (1994). *Losing control: How and why people fail at self-regulation*.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Beck, B. L., Koons, S. R., & Milgrim, D. L. (2000). Correlates and consequences of behavioral procrastination: The effects of academic procrastination, self-esteem and self-handcapping.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5, 3-13.
- Beswick, G., Rothblum, E. D., & Mann, L. (1998). Psychological antecedents of student procrastination. *Australian Psychologist*, 23(2), 207-217.
- Birney, R. C., Burdick, H., & Teevan, R. C. (1969). *Fear of failure*. New York: Van Nostrand.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 Carleton, R. N., McCreary, D., Norton, P. J., & Asmundson, G. J. G. (2006). *The Brie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Revised*. Depression & Anxiety.
- Covington, M. V. (1992). *Making the grade: A self-worth perspective on motivation and school*

- refor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ffenbacher, J. L., Zwemer, W. A., Whisman, M. A., Hill, R. A., & Slean, R. D. (1986). Irrational beliefs and anxie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0, 281-291.
- Eerde, W. van. (2003). A meta-analytically derived nomological network of procrastin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 1401-1418.
- Ellis, A., & Knaus, W. J. (2002). *Overcoming procrastination*. New York: Signet.
- Ferrari, J. R. (2004). Trait procrastination in academic settings: An overview of students who engage in task delays. In H. C. Schouwenburg, C. H. Lay, T. A. Pychyl, & J. R. Ferrari. (Eds.), *Counseling the procrastinator in academic settings* (pp. 19-28). Washington. DC: APA Publishing.
- Ferrari, J. R., Johnson J. L., & McCown, W. G. (1995). *Procrastination and task avoidance: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lenum Press, New York and London.
- Ferrari, J. R., & Olivette, M. J. (1994). Parental authority influences on the development of indecision among late adolescent females. *Adolescence*, 28, 963-970.
- Flett, G. L., Blankstein, K. R., & Martin, T. R. (1995). Procrastination, negative self-evaluation, and stress in depression and anxiety: A review and preliminary model. In J. R. Ferrari, J. L. Johnson, & W. G. McCown (Eds.), *Procrastination and task avoidance: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137-167. New York: Plenum Press.
- Flett, G. L., Hewitt, P. L., & Martin, T. R. (1995). Dimensions of perfectionism and procrastination. In J. R. Ferrari, J. L. Johnson, & W. G. McCown (Eds.), *Procrastination and task avoidance: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113-136. New York: Plenum Press.
- Flett, G. L., Hewitt, P. L., Oliver, J. M., & Macdonald, S. (2002). Perfectionism in children and their parents: A developmental analysis. In G. L. Flett &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 89-13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ycock, L. A., McCathy, P., & Skay, C. L. (1998). Procrastination in college students: The role of self-efficacy and anxiet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6, 317-324.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Jones, E., & Rhodewalt, F. (1982). *Self-handcapping scale*.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Utah.
- Marks, I. M., & Gelder, M. (1996). Different ages of onset in varieties of phobia.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3, 218-221.
- Milgram, N., & Tenne, R. (2000). Personality correlates of decisional and task avoidant procrastinatio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4, 141-156.
- Reiss, S., & McNally, R. J. (1985). The expectancy

- model of fear. In S. Reiss, & R. R. Bootzin (Eds.), *Theoretical issues in behavior therapy*. New York: Academic Press.
 - Rijkeboer, M. M., & de Boo, G. M. (2010). Early maladaptive schemas in childre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chema inventory for children.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41, 102-109.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S.,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18-29.
 - Saddler, C. D., & Buley, J. (1999). Predictors of academic procrastination in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Reports*, 84, 686-688.
 - Solomon L. J., & Rothblum, E. D. (1984). Academic procrastination: Frequency and cognitive-behavioral correla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503-509.
 - Steel, P. (2007). The nature of procrastination: A meta-analytic and theoretical review of quintessential self regulatory failure. *Psychological Bulletin*, 133(1), 65-94.
 - Stein, M. B., Jang, K. L., & Livesley, W. J. (2002). Heritability of social anxiety-related concerns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 twin study.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0, 219-224.
 - Urdan, T., & Midgley, C. (2001). Academic Self-handicapping: What we know what more there is to learn.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3(2), 115-138.
 - Van Eerde, W. (2003). A meta analytically derived nomological network of procrastin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35(6), 1401-1418.
 - Young, J. E., Klosko, J. S., & Weishaar, M. E. (2003). *Schema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New York: Guilford Press.
- 1 차원고접수 : 2014. 01. 15.
수정원고접수 : 2014. 02. 13.
최종게재결정 : 2014. 03. 04.

**The Effects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on the
Procrastination Behavior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Self-handicapping**

Jeong, Mi-Kyeong¹⁾

Lee, Jee-Yon²⁾

Jang, Jin-Yi³⁾

¹⁾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²⁾Dept. of Creative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cheon National University

³⁾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Yongmoon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This study sought to test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self-handicapping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procrastination behavior.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456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metropolitan area were surveyed. The data were submitted to AMOS to test for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s a result, a second alternative model was selected. Early maladaptive schemas were found to be directly influenced on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elf-handicapping and procrastination behavior. Additionally early maladaptive schemas indirectly had influenced upon procrastination behavior through self-handicapping and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indirectly influenced procrastination behavior through self-handicapping. Therefore, these results imply that it is necessary to focus on self-handicapping for the sake of intervention for procrastination behavior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implications for effective intervention strategies and future research on psycho-education and counseling for procrastination behavior were also discussed.

Keywords : early maladaptive schema, procrastination behavior,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elf-handicapping, mediating effect